

환자가 만드는 의료서비스 불합리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도 소비자이다. 또한 의료행위도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면 소비자인 환자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요즘 많은 병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됨을 실감하지 못한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불합리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환자의 의견을 들어보기위해 <고발코너>를 마련했다.

❖ 대장내시경 검사 후 천공 ❖

최 모씨(남· 50세)는 복부팽만으로 병원을 방문해 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덩어리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고 내시경 시술을 받았다. 3일 후 혈변과 함께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장이 천공돼 복막염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인공항문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용종절제술 전후의 부작용 가능성이나 주의사항을 설명들은 적이 없고, 담당의사가 충분히 검사도 없이 급하게 시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라며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처리 결과는 이렇었다

시술 전 의사의 처치 소홀과 합병증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동의서도 받지 않은 점이 인정돼 치료비 및 위자료로 500만원 배상하도록 했다.

<소비자 주의사항>

내시경기구에 의한 검사는 시술자의 기술과 경험 또는 환자의 협조여부에 따라 천공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검사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효과, 검사 후의 처치와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문의하고, 의사의 설명이 충분히 납득됐을 때에 한해, 검사를 승낙해야 하며 시술자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한다.

부작용을 사전에 고지 받았다 해도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나쁜 결과는 배상이 가능하다.

❖ 자궁 외 임신으로 오진 ❖

김모 씨(34세)는 임신반응검사 결과 정상임신으로 진단받고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수정란이 보이지 않아 경과를 보기로 했다.

2주일 후 초음파검사 상에도 자궁 내에 수정란이 보이지 않자 자궁 외 임신을 의심해 혈액검사를 받고 귀가했으나 심한 복통 및 하혈이 나타났다. 담당의사는 자궁에서 나온 잔여물을 조직 검사해 자궁 내 임신을 확인하고 치료적 소파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3일 후 극심한 복부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방문, 자궁 외 임신(나팔관임신)으로 나팔관이 파열 돼 나팔관 절제술을 받았다.

김 씨는 담당의사가 자궁 외 임신을 정상임신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음은 물론 조기에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담당의사는 조직검사 결과, 자궁 내 임신이 분명했으나 나팔관이 파열된 것은 자궁 내 및 자궁 외 병합임신의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진단이 매우 어려우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처리 결과는 이랬다

다시 자궁 내 산물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태아 산물이 보이지 않아 자궁 내 임신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검사 판독 상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해 위자료로 110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소비자 주의사항〉

정상임신은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데, 자궁 외 임신은 자궁강 이외 복강이나 난관·난소 등에 착상되는 것을 말하며, 파열되면 출혈로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되므로 진단 즉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

자궁 외 임신은 파열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초기 정상임신으로 오인되기도 하므로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산부인과를 찾가 정상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궁 외 임신은 인공 유산을 많이 한 경우에 유착으로 인한 폐색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항생제 남용·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고 초기 임신 시 자궁 내에 수정란이 보이지 않으면 자궁 외 임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단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해 불필요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각 병원에서 겪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는 코너를 마련합니다.
물론 당뇨인에게 소개해 널리 알리고 싶은 병의원이나 의료진이 있으면 추천도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타인에게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으며 신변을 보호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 사무국: 02-771-8542, 080-900-1119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3가 11-3 세대빌딩 1003호 (사)한국당뇨협회 편집부